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한국사료협회 과장)*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2013/14 시즌 주요 곡물에 대한 수급 전망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곡물 시장은 2014/15 시즌의 곡물 수급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및 대두 파종 예상 면적과 파종의 진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미국 농무부는 2014/15 시즌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 밀 등의 파종 예상 면적을 발표한 바도 있으나, 기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곡물 가격은 구곡(舊穀)에 대한 수급 변화와 더불어 올해 추수될 신곡(新穀)의 파종 및 작황 상태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도 파종 지연과 한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고점대를 보였던 곡물 가격이 생육과정을 거쳐 추수기에 이르기까지 양호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풍작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올해 초까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북반구 주요 생산국은 한파의 지속으로 인하여 파종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조한 기후 역시 곡물의 생장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학자들은 올해 하반기에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의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올해 곡물 시장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시장의 변화 역시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주식시장과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라 곡물을 비롯한 상품 선물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미국 농무부가 올해 4

* mskim@kofeed.org, 02-581-5730.

월 9일자로 발표한 2013/14 시즌 마지막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살펴본다.

1. 세계 곡물 수급 및 전망

2013/14년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및 잡곡 등을 합산한 세계 조곡의 생산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9.4%, 11.2% 증가한 12억 6,40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7.1%, 8.7% 증가한 12억 3,65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3.5%, 23.8% 증가한 1억 5,17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2.7%, 12.5% 증가한 1억 4,437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5.4%, 16.7% 증가한 1억 9,21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생산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9%, 0.9% 증가한 4억 7,55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3.2%, 1.5% 증가한 4억 7,45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8%, 4.5% 증가한 4,09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9.7%, 6.1% 증가한 3,909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4.2%, 0.9% 증가한 1억 1,11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생산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2%, 8.5% 증가한 7억 1,25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0.8%, 3.5% 증가한 7억 24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0%, 17.1% 증가한 1억 6,08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7%, 6.4% 증가한 1억 5,331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말 재고량의 경우 1억 8,668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해서는 6.1% 감소하였으나, 2012/13년 대비해서는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9.8%, 12.3% 증가한

9억 7,3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7.6%, 9.8% 증가한 9억 5,0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1%, 26.0% 증가한 1억 1,94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3.5%, 14.7% 증가한 1억 1,341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9.0%, 17.6% 증가한 1억 5,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8.6%, 5.9% 증가한 2억 8,40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소비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4.4%, 4.0% 증가한 2억 6,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8.7%, 8.7% 증가한 1억 94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3.3%, 10.8% 증가한 1억 593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9.6%, 20.0% 증가한 6,94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구분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수출량	재고량	재고비율
세계 조곡	13/14(A)	164.73	1264.04	144.37	1236.59	151.77	192.18	13.8
	12/13(B)	166.54	1136.25	128.28	1138.06	122.59	164.73	13.1
	11/12(C)	166.62	1154.95	128.14	1155.04	146.69	166.54	12.8
	증감율(A/B)	-1.1	11.2	12.5	8.7	23.8	16.7	
	증감율(A/C)	-1.1	9.4	12.7	7.1	3.5	15.4	
세계 쌀	13/14(A)	110.18	475.57	39.09	474.56	40.91	111.19	21.6
	12/13(B)	106.68	471.27	36.84	467.77	39.15	110.18	21.7
	11/12(C)	99.55	466.92	35.62	459.79	39.79	106.68	21.4
	증감율(A/B)	3.3	0.9	6.1	1.5	4.5	0.9	
	증감율(A/C)	10.7	1.9	9.7	3.2	2.8	4.2	
세계 밀	13/14(A)	176.60	712.52	153.31	702.44	160.89	186.68	21.6
	12/13(B)	198.89	656.50	144.04	678.79	137.40	176.60	21.6
	11/12(C)	198.93	697.04	149.32	697.08	157.78	198.89	23.3
	증감율(A/B)	-11.2	8.5	6.4	3.5	17.1	5.7	
	증감율(A/C)	-11.2	2.2	2.7	0.8	2.0	-6.1	
세계 옥수수	13/14(A)	134.40	973.90	113.41	950.30	119.43	158.00	14.8
	12/13(B)	132.82	866.94	98.91	865.37	94.79	134.40	14.0
	11/12(C)	129.35	886.64	99.92	883.16	116.98	132.82	13.3
	증감율(A/B)	1.2	12.3	14.7	9.8	26.0	17.6	
	증감율(A/C)	3.9	9.8	13.5	7.6	2.1	19.0	
세계 대두	13/14(A)	57.87	284.05	105.93	269.00	109.43	69.42	18.3
	12/13(B)	53.58	268.10	95.57	258.74	100.65	57.87	16.1
	11/12(C)	70.36	239.57	93.46	257.65	92.16	53.58	15.3
	증감율(A/B)	8.0	5.9	10.8	4.0	8.7	20.0	
	증감율(A/C)	-17.8	18.6	13.3	4.4	18.7	29.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2.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116만 톤, 베트남 85만 톤, 인도네시아 648만 톤, 필리핀 149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쌀 기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3.2%, 56.2%, 9.1%, 39.4%, 2012/13년 대비 각각 10.8%, 53.6%, 12.4%,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도 2,544만 톤, 태국 1,281만 톤, 미얀마 55만 톤, 중국 4,738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쌀 기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8.3%, 127.9%, 12.2%, 11.3%, 2012/13년 대비 각각 1.4%, 37.3%, 37.5%,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파키스탄, 이집트, 일본의 쌀 기초 재고량은 각각 50만 톤, 46만 톤, 274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66.7%, 283.3%, 1.1%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9.1%, 6.1%,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과는 반대로 브라질 및 한국의 쌀 기초 재고량은 각각 63만 톤, 74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21.3%, 28.2%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16.7%,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주요국의 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1/12 대비 (C/B)
미국	1.51	1.30	1.16	-23.2	-10.8
인도	23.50	25.10	25.44	8.3	1.4
파키스탄	0.30	0.55	0.50	66.7	-9.1
태국	5.62	9.33	12.81	127.9	37.3
베트남	1.94	1.83	0.85	-56.2	-53.6
브라질	0.80	0.54	0.63	-21.3	16.7
인도네시아	7.13	7.40	6.48	-9.1	-12.4
필리핀	2.46	1.51	1.49	-39.4	-1.3
미얀마	0.49	0.40	0.55	12.2	37.5
중국	42.57	45.02	47.38	11.3	5.2
이집트	0.12	0.49	0.46	283.3	-6.1
일본	2.71	2.75	2.74	1.1	-0.4
한국	1.03	0.73	0.74	-28.2	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생산량을 살펴보면, 인도의 쌀 생산량은 1억 500만 톤으로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0.3%,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쌀 생산량은 각각 612만 톤, 1억 4,23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4.3%, 1.1%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3.5%,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주요 국가들의 쌀 생산량은 파키스탄 660만 톤, 태국 2,050만 톤, 베트남 2,780만 톤, 브라질 860만 톤, 인도네시아 3,736만 톤, 필리핀 1,164만 톤, 미얀마 1,196만 톤, 이집트 485만 톤, 일본 783만 톤, 한국 423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6.5%, 0.2%, 2.4%, 9.0%, 2.4%, 8.7%, 4.3%, 14.1%, 2.4%, 0.2%, 2012/13년 대비 13.8%, 1.5%, 1.0%, 7.6%, 2.2%, 1.8%, 2.0%, 3.6%, 0.9%,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주요국의 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5.87	6.34	6.12	4.3	-3.5
인도	105.31	105.24	105.00	-0.3	-0.2
파키스탄	6.20	5.80	6.60	6.5	13.8
태국	20.46	20.20	20.50	0.2	1.5
베트남	27.15	27.52	27.80	2.4	1.0
브라질	7.89	7.99	8.60	9.0	7.6
인도네시아	36.50	36.55	37.36	2.4	2.2
필리핀	10.71	11.43	11.64	8.7	1.8
미얀마	11.47	11.72	11.96	4.3	2.0
중국	140.70	143.00	142.30	1.1	-0.5
이집트	4.25	4.68	4.85	14.1	3.6
일본	7.65	7.76	7.83	2.4	0.9
한국	4.22	4.01	4.23	0.2	5.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쌀 소비량은 2,1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12/13년 대비해서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의 쌀 소비량은 461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필리핀 및 일본의 쌀 소비량이 각각 1,285만 톤, 825만 톤으로 2013/14년과 동일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국가들의 쌀 소비량은 미국 397만 톤, 인도 9,600만 톤, 파키스탄 260만 톤, 태국 1,080만 톤, 브라질 805만 톤, 인

도네시아 3,865만 톤, 미얀마 1,050만 톤, 중국 1억 4,600만 톤, 이집트 4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3.8%, 2.9%, 2.0%, 3.8%, 1.5%, 1.2%, 2.9%, 4.6%, 10.5%, 2012/13년 대비 5.9%, 2.1%, 13.0%, 1.9%, 2.5%, 1.4%, 1.0%, 1.4%,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주요국의 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3.49	3.75	3.97	13.8	5.9
인도	93.33	94.03	96.00	2.9	2.1
파키스탄	2.55	2.30	2.60	2.0	13.0
태국	10.40	10.60	10.80	3.8	1.9
베트남	19.65	21.90	21.50	9.4	-1.8
브라질	7.93	7.85	8.05	1.5	2.5
인도네시아	38.19	38.13	38.65	1.2	1.4
필리핀	12.86	12.85	12.85	-0.1	0.0
미얀마	10.20	10.40	10.50	2.9	1.0
중국	139.60	144.00	146.00	4.6	1.4
이집트	3.62	3.90	4.00	10.5	2.6
일본	8.05	8.25	8.25	2.5	0.0
한국	4.91	4.50	4.61	-6.1	2.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312만 톤, 인도 1,000만 톤, 베트남 65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5%, 3.7%, 15.8%, 2012/13년 대비 각각 8.2%, 8.0%,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파키스탄 390만 톤, 태국 90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2.7%, 29.5%, 2012/13년 대비 각각 8.3%, 3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국의 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3.20	3.40	3.12	-2.5	-8.2
인도	10.38	10.87	10.00	-3.7	-8.0
파키스탄	3.46	3.60	3.90	12.7	8.3
태국	6.95	6.72	9.00	29.5	33.9
베트남	7.72	6.70	6.50	-15.8	-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수입량을 살펴보면, 필리핀의 쌀 수입량은 20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66.7%, 4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도네시아 및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량이 각각 150만 톤, 3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23.5%,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130.8%,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EU 및 서남아시아의 쌀 수입량은 각각 135만 톤, 42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3.8%,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3.6%,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주요국의 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브라질	0.73	0.70	0.70	-4.1	0.0
EU-27	1.30	1.40	1.35	3.8	-3.6
인도네시아	1.96	0.65	1.50	-23.5	130.8
나이지리아	3.20	2.80	3.00	-6.3	7.1
필리핀	1.20	1.40	2.00	66.7	42.9
서남아시아	3.93	4.54	4.25	8.1	-6.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88만 톤, 인도 2,444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쌀 기말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32.3%, 2.6%, 2012/13년 대비 각각 24.1%,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의 쌀 기말 재고량은 8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5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쌀 기말 재고량은 668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9.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집트의 쌀 기말 재고량은 49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쌀 기말 재고량은 4,683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가들의 쌀 기말 재고량은 파키스탄 60만 톤, 태국 1,411만 톤, 브라질 93만 톤, 필리핀 228만 톤, 미얀마 71만 톤, 일본 282만 톤 한국 78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9.1%, 51.2%, 72.2%, 51.0%, 77.5%, 2.5%, 6.8%, 2012/13년 대비 각각 20.0%, 10.1%, 47.6%, 53.0%, 29.1%, 2.9%,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의 2013/14년 쌀 기말 재고율을 살펴보면, 미국 12.4%, 인도 23.1%, 중국 32.0%로써 이들 국가의 쌀 기말 재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7.0%p, 1.1%p, 0.1%p, 2012/13년 대비 3.8%p, 1.2%p, 0.8%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71.3%로써 2011/12년 대비 17.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2.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의 경우 각각 17.3%, 10.1%로써 2011/12년 대비 각각 2.1%p, 1.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0.3%p,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키스탄의 경우 9.2%로써 2011/12년 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0.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브라질, 필리핀, 미얀마, 일본, 한국의 쌀 기말 재고율은 각각 10.3%, 17.7%, 6.0%, 33.4%, 16.9%로써 2011/12년 대비 각각 4.2%p, 6.0%p, 2.5%p, 0.1%p, 2.0%p, 2012/13년 대비 각각 3.0%p, 6.1%p, 1.2%p, 1.0%p, 0.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주요국의 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1.30 (19.4%)	1.16 (16.2%)	0.88 (12.4%)	-32.3 (-7.0%p)	-24.1 (-3.8%p)
인도	25.10 (24.2%)	25.44 (24.3%)	24.44 (23.1%)	-2.6 (-1.1%p)	-3.9 (-1.2%p)
파키스탄	0.55 (9.2%)	0.50 (8.5%)	0.60 (9.2%)	9.1 (0.0%p)	20.0 (0.7%p)
태국	9.33 (53.8%)	12.81 (74.0%)	14.11 (71.3%)	51.2 (17.5%p)	10.1 (-2.7%p)
베트남	1.83 (6.7%)	0.85 (3.0%)	0.85 (3.0%)	-53.6 (-3.7%p)	0.0 (0.0%p)
브라질	0.54 (6.1%)	0.63 (7.3%)	0.93 (10.3%)	72.2 (4.2%p)	47.6 (3.0%p)
인도네시아	7.40 (19.4%)	6.48 (17.0%)	6.68 (17.3%)	-9.7 (-2.1%p)	3.1 (0.3%p)
필리핀	1.51 (11.7%)	1.49 (11.6%)	2.28 (17.7%)	51.0 (6.0%p)	53.0 (6.1%p)
미얀마	0.40 (3.5%)	0.55 (4.8%)	0.71 (6.0%)	77.5 (2.5%p)	29.1 (1.2%p)
중국	45.02 (32.1%)	47.38 (32.8%)	46.83 (32.0%)	4.0 (-0.1%p)	-1.2 (-0.8%p)
이집트	0.49 (11.6%)	0.46 (9.7%)	0.49 (10.1%)	0.0 (-1.5%p)	6.5 (0.4%p)
일본	2.75 (33.3%)	2.74 (32.4%)	2.82 (33.4%)	2.5 (0.1%p)	2.9 (1.0%p)
한국	0.73 (14.9%)	0.74 (16.4%)	0.78 (16.9%)	6.8 (2.0%p)	5.4 (0.5%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3.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도 밀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인도의 밀 기초 재고량은 2,420만 톤으로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57.6%, 2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밀 기초 재고량은 294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5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주요 국가의 밀 기초 재고량은 미국 1,954만 톤, 캐나다 505만 톤, 아르헨티나 29만 톤, 브라질 100만 톤, EU 1,058만 톤, 러시아 495만 톤, 우크라이나 258만 톤, 호주 424만 톤, 중국 5,396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6.7%, 31.4%, 92.9%, 45.9%, 11.3%, 64.0%, 22.8%, 48.2%, 8.7% 2012/13년 대비 3.3%, 14.8%, 60.8%, 42.9%, 22.0%, 54.6%, 51.9%, 39.9%,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23.47	20.21	19.54	-16.7	-3.3
캐나다	7.36	5.93	5.05	-31.4	-14.8
아르헨티나	4.11	0.74	0.29	-92.9	-60.8
브라질	1.85	1.75	1.00	-45.9	-42.9
EU-27	11.93	13.56	10.58	-11.3	-22.0
러시아	13.74	10.90	4.95	-64.0	-54.6
카자흐스탄	2.88	6.18	2.94	2.1	-52.4
우크라이나	3.34	5.36	2.58	-22.8	-51.9
호주	8.18	7.05	4.24	-48.2	-39.9
인도	15.36	19.95	24.20	57.6	21.3
중국	59.09	55.95	53.96	-8.7	-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밀 생산량을 살펴보면, 캐나다 3,750만 톤, EU 1억 4,289만 톤 및 중국 1억 2,172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48.3%, 3.4%, 3.7%, 2012/13년 대비 각각 37.8%, 6.7%,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및 인도의 밀 생산량은 각각 5,796만 톤, 9,351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6.5%, 7.6%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6.0%,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과는 반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및 호주의 밀 생산량은 각각 1,050만 톤, 530만 톤, 5,209만 톤, 1,394만 톤, 2,228만 톤, 2,7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32.3%, 8.6%, 7.4%, 38.7%, 0.2%, 9.7% 감소함에 반

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12.9% 21.0% 38.1% 41.7% 41.4% 2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54.41	61.67	57.96	6.5	-6.0
캐나다	25.29	27.21	37.50	48.3	37.8
아르헨티나	15.50	9.30	10.50	-32.3	12.9
브라질	5.80	4.38	5.30	-8.6	21.0
EU-27	138.18	133.88	142.89	3.4	6.7
러시아	56.24	37.72	52.09	-7.4	38.1
카자흐스탄	22.73	9.84	13.94	-38.7	41.7
우크라이나	22.32	15.76	22.28	-0.2	41.4
호주	29.91	22.46	27.00	-9.7	20.2
인도	86.87	94.88	93.51	7.6	-1.4
중국	117.40	121.02	121.72	3.7	0.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밀 소비량을 살펴보면, 캐나다 1,040만 톤, 브라질 1,140만 톤, 호주 695만 톤 및 인도 9,273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5.6%, 1.8%, 6.8%, 13.9%, 2012/13년 대비 각각 8.4%, 4.6%, 3.1%,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의 밀 소비량은 1억 1,70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8.0%,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아르헨티나 및 중국의 밀 소비량이 각각 3,414만 톤, 605만 톤, 1억 2,3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6.3%, 1.7%, 0.8%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10.8%, 2.4%,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과는 반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밀 소비량은 각각 3,450만 톤, 730만 톤, 1,1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9.2%, 3.9%, 23.1%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2.8%, 7.4%,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사료용 밀 소비량을 살펴보면, 캐나다 520만 톤, 브라질 60만 톤, 호주 360만 톤 및 인도 48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사료용 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0.6%, 20.0%, 12.5%, 54.8%, 2012/13년 대비 각각 18.5% 200.0%, 5.9%, 4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4,900만 톤, 중국 2,30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4.8%, 4.2%, 2012/13년 대비 각각 3.9%,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10만 톤으로 2011/12년과는 변동이 없으나, 2012/13년 대비해서는 6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미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599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35.5%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4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과는 반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각각 1,300만 톤, 250만 톤, 34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6.1%, 3.8%, 44.3%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9.2%, 25.0%,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주요국의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32.11 (4.42)	38.27 (10.57)	34.14 (5.99)	6.3 (35.5)	-10.8 (-43.3)
캐나다	9.85 (4.70)	9.59 (4.39)	10.40 (5.20)	5.6 (10.6)	8.4 (18.5)
아르헨티나	5.95 (0.10)	6.20 (0.30)	6.05 (0.10)	1.7 (0.0)	-2.4 (-66.7)
브라질	11.20 (0.50)	10.90 (0.20)	11.40 (0.60)	1.8 (20.0)	4.6 (200.0)
EU-27	127.23 (57.50)	119.50 (51.00)	117.00 (49.00)	-8.0 (-14.8)	-2.1 (-3.9)
러시아	38.00 (15.50)	33.55 (11.90)	34.50 (13.00)	-9.2 (-16.1)	2.8 (9.2)
카자흐스탄	7.60 (2.60)	6.80 (2.00)	7.30 (2.50)	-3.9 (-3.8)	7.4 (25.0)
우크라이나	14.95 (6.10)	11.40 (3.10)	11.50 (3.40)	-23.1 (-44.3)	0.9 (9.7)
호주	6.51 (3.20)	6.74 (3.40)	6.95 (3.60)	6.8 (12.5)	3.1 (5.9)
인도	81.40 (3.10)	83.82 (3.40)	92.73 (4.80)	13.9 (54.8)	10.6 (41.2)
중국	122.50 (24.00)	125.00 (25.00)	123.50 (23.00)	0.8 (-4.2)	-1.2 (-8.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밀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3,198만톤, 캐나다 2,250만톤, EU 2,900만 톤, 우크라이나 95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1.8%, 29.7%, 73.8%, 74.6%, 2012/13년 대비 각각 16.6%, 18.5%, 28.2%, 3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르헨티나 300만 톤, 브라질 2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76.8%, 90.2%, 2012/13년 대비 각각 15.5%, 8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은 각각 1,750만 톤, 7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9.1%, 36.7%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 각각 55.0%, 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인도의 밀 수출량은 6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574.2%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1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주요국의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28.61	27.42	31.98	11.8	16.6
캐나다	17.35	18.98	22.50	29.7	18.5
아르헨티나	12.93	3.55	3.00	-76.8	-15.5
브라질	2.04	1.58	0.20	-90.2	-87.3
EU-27	16.69	22.62	29.00	73.8	28.2
러시아	21.63	11.29	17.50	-19.1	55.0
카자흐스탄	11.84	6.29	7.50	-36.7	19.2
우크라이나	5.44	7.19	9.50	74.6	32.1
호주	24.66	18.66	19.00	-23.0	1.8
인도	0.89	6.82	6.00	574.2	-12.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주요 국가의 2013/14년 밀 수입량을 살펴보면, 브라질 740만 톤, 중국 700만 톤, 서남아시아 2,069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0.8%, 138.9%, 26.9%, 2012/13년 대비 각각 0.5%, 136.5%,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각각 2,340만 톤, 1,59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6.0%, 8.7%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5.6%,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주요국의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브라질	7.34	7.36	7.40	0.8	0.5
중국	2.93	2.96	7.00	138.9	136.5
서남아시아	16.31	20.43	20.69	26.9	1.3
북아프리카	24.90	22.16	23.40	-6.0	5.6
동남아시아	17.41	15.76	15.90	-8.7	0.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3/14년 밀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캐나다 1,012만 톤, 아르헨티나 175만 톤, 브라질 210만 톤, 중국 5,818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기말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70.7%, 136.5%, 20.0%, 4.0%, 2012/13년 대비 각각 100.4%, 503.4%, 110.0%,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카자흐스탄 및 인도의 밀 기말 재고량은 각각 1,587만 톤, 209만 톤, 1,90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밀 기말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1.5%, 66.2%, 4.8%, 2012/13년 대비 각각 18.8%, 28.9%, 2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호주의 밀 기말 재고량은 각각 1,127만 톤, 624만 톤, 396만 톤, 542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6.9%, 42.8%, 26.1%, 23.1%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6.5%, 26.1%, 53.5%, 2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의 2013/14년 밀 기말 재고율을 살펴보면 캐나다 30.8%, 아르헨티나 19.3%, 브라질 18.1% 및 중국 46.7%로써 이들 국가의 밀 기말 재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9.0%p, 15.4%p, 4.9%p, 1.4%p, 2012/13년 대비 각각 13.1%p, 16.3%p, 10.1%p, 3.9%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24.0%, 카자흐스탄 14.1% 및 인도 19.3%로써 이들 국가의 밀 기말 재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9.3%p 17.7%p 4.9%p, 2012/13년 대비 각각 5.7%p, 8.4%p, 7.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호주의 밀 기말 재고율은 각각 7.7%, 12.0%, 18.9%, 20.9%로써 2011/12년 대비 각각 1.7%p, 6.3%p, 7.4%p, 1.7%p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 각각 0.3%p, 1.0%p, 5.0%p, 4.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20.21 (33.3%)	19.54 (29.7%)	15.87 (24.0%)	-21.5 (-9.3%p)	-18.8 (-5.7%p)
캐나다	5.93 (21.8%)	5.05 (17.7%)	10.12 (30.8%)	70.7 (9.0%p)	100.4 (13.1%p)
아르헨티나	0.74 (3.9%)	0.29 (3.0%)	1.75 (19.3%)	136.5 (15.4%p)	503.4 (16.3%p)
브라질	1.75 (13.2%)	1.00 (8.0%)	2.10 (18.1%)	20.0 (4.9%p)	110.0 (10.1%p)
EU-27	13.56 (9.4%)	10.58 (7.4%)	11.27 (7.7%)	-16.9 (-1.7%p)	6.5 (0.3%p)
러시아	10.90 (18.3%)	4.95 (11.0%)	6.24 (12.0%)	-42.8 (-6.3%p)	26.1 (1.0%p)
카자흐스탄	6.18 (31.8%)	2.94 (22.5%)	2.09 (14.1%)	-66.2 (-17.7p)	-28.9 (-8.4%p)
우크라이나	5.36 (26.3%)	2.58 (13.9%)	3.96 (18.9%)	-26.1 (-7.4%p)	53.5 (5.0%p)
호주	7.05 (22.6%)	4.24 (16.7%)	5.42 (20.9%)	-23.1 (-1.7%p)	27.8 (4.2%p)
인도	19.95 (24.2%)	24.20 (26.7%)	19.00 (19.3%)	-4.8 (-4.9%p)	-21.5 (-7.4%p)
중국	55.95 (45.3%)	53.96 (42.8%)	58.18 (46.7%)	4.0 (1.4%p)	7.8 (3.9%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캐나다 155만 톤, 브라질 1,415만 톤, 우크라이나 120만 톤, 중국 6,55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3.0%,

37.6%, 7.1%, 32.7%, 2012/13년 대비 각각 13.1%, 53.6%, 14.3%,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2,086만 톤, EU 508만 톤, 남아프리카 30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7.2%, 2.7%, 10.2%, 2012/13년 대비 각각 17.0%, 23.8%, 16.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141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5.9%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4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28.64	25.12	20.86	-27.2	-17.0
캐나다	1.26	1.37	1.55	23.0	13.1
아르헨티나	4.13	0.99	1.41	-65.9	42.4
브라질	10.28	9.21	14.15	37.6	53.6
EU-27	5.22	6.67	5.08	-2.7	-23.8
우크라이나	1.12	1.05	1.20	7.1	14.3
남아프리카	3.42	3.68	3.07	-10.2	-16.6
중국	49.42	59.34	65.57	32.7	10.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생산량을 살펴보면, 미국 3억 5,372만 톤, 캐나다 1,420만 톤, 우크라이나 3,090만 톤, 남아프리카 1,400만 톤, 중국 2억 1,773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2.7%, 25.0%, 35.3%, 9.7%, 12.9%, 2012/13년 대비 각각 29.2%, 8.7%, 47.7%, 13.2%,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브라질은 7,200만 톤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4%,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2,4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4.3%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1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과는 반대로 EU의 옥수수 생산량은 6,489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4.7%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

는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313.95	273.83	353.72	12.7	29.2
캐나다	11.36	13.06	14.20	25.0	8.7
아르헨티나	21.00	27.00	24.00	14.3	-11.1
브라질	73.00	81.50	72.00	-1.4	-11.7
EU-27	68.12	58.86	64.89	-4.7	10.2
우크라이나	22.84	20.92	30.90	35.3	47.7
남아프리카	12.76	12.37	14.00	9.7	13.2
중국	192.78	205.61	217.73	12.9	5.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2억 9,719만 톤, 캐나다 1,290만 톤, 아르헨티나 830만 톤, 브라질 5,500만 톤, EU 7,450만 톤, 우크라이나 1,010만 톤, 남아프리카 1,120만 톤, 중국 2억 1,60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은 지속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6.5%, 10.8%, 18.6%, 8.9%, 7.2%, 29.5%, 4.7%, 14.9%, 2012/13년 대비 각각 12.7%, 11.1%, 5.1%, 4.8%, 7.0%, 24.7%, 1.8%,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1억 3,463만 톤, 캐나다 750만 톤, 아르헨티나 550만 톤, 브라질 4,600만 톤, EU 5,600만 톤, 우크라이나 850만 톤, 남아프리카 520만 톤 및 중국 1억 5,60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지속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6.3%, 17.2%, 14.6%, 7.0%, 3.7%, 30.8%, 5.1%, 19.1%, 2012/13년 대비 각각 22.3%, 19.4%, 3.8%, 3.4%, 5.7%, 25.0%, 2.0%,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279.03 (115.74)	263.64 (110.06)	297.19 (134.63)	6.5 (16.3)	12.7 (22.3)
캐나다	11.64 (6.40)	11.61 (6.28)	12.90 (7.50)	10.8 (17.2)	11.1 (19.4)
아르헨티나	7.00 (4.80)	7.90 (5.30)	8.30 (5.50)	18.6 (14.6)	5.1 (3.8)
브라질	50.50 (43.00)	52.50 (44.50)	55.00 (46.00)	8.9 (7.0)	4.8 (3.4)
EU-27	69.50 (54.00)	69.60 (53.00)	74.50 (56.00)	7.2 (3.7)	7.0 (5.7)
우크라이나	7.80 (6.50)	8.10 (6.80)	10.10 (8.50)	29.5 (30.8)	24.7 (25.0)
남아프리카	10.70 (4.95)	11.00 (5.10)	11.20 (5.20)	4.7 (5.1)	1.8 (2.0)
중국	188.00 (131.00)	202.00 (144.00)	216.00 (156.00)	14.9 (19.1)	6.9 (8.3)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4,445만 톤, 우크라이나 1,900만 톤, 남아프리카 25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3.5%, 25.3%, 38.1%, 2012/13년 대비 각각 139.2%, 49.3%, 2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르헨티나 1,600만 톤, 브라질 2,000만 톤, EU 20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6.7%, 17.8%, 39.2%, 2012/13년 대비 각각 14.4%, 19.8%,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캐나다의 옥수수 수출량은 1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206.1%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 1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39.18	18.58	44.45	13.5	139.2
캐나다	0.49	1.75	1.50	206.1	-14.3
아르헨티나	17.15	18.69	16.00	-6.7	-14.4
브라질	24.34	24.95	20.00	-17.8	-19.8
EU-27	3.29	2.19	2.00	-39.2	-8.7
우크라이나	15.16	12.73	19.00	25.3	49.3
남아프리카	1.81	2.00	2.50	38.1	25.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수입량을 살펴보면, EU 1,200만 톤, 일본 1,550만 톤, 한국 950만 톤, 멕시코 1,15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96.4%, 4.1%, 24.3%, 3.0%, 2012/13년 대비 각각 5.7%, 7.6%, 16.3%, 10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 및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은 각각 500만 톤, 6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4.4%, 9.1%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 각각 85.2%, 2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EU-27	6.11	11.35	12.00	96.4	5.7
중국	5.23	2.70	5.00	-4.4	85.2
일본	14.89	14.41	15.50	4.1	7.6
한국	7.64	8.17	9.50	24.3	16.3
멕시코	11.17	5.68	11.50	3.0	102.5
이집트	7.15	5.06	6.50	-9.1	28.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미국 3,382만 톤, 캐나다 185만 톤, 우크라이나 305만 톤, 중국 7,22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34.6%, 35.0%, 190.5%, 21.7%, 2012/13년 대비 각각 62.1%, 19.4%, 154.2%,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각각 112만 톤, 1,19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3.1%, 29.8%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 각각 20.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및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각각 546만 톤, 339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8.1% 7.9%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7.5%,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의 2013/14년 옥수수 기말 재고율을 살펴보면 미국 9.9%, 캐나다 12.8%, 우크라이나 10.5%, 중국 33.4%로써 이들 국가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0%p, 1.5%p, 5.9%p, 1.9%p, 2012/13년 대비 각각 2.5%p, 1.2%p, 4.7%p, 1.0%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각각 4.6%, 15.9%로써 2011/12년 대비 각각 0.5%p, 3.6%p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0.7%p, 2.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및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각각 7.1%, 24.7%로써 2011/12년 대비 각각 2.1%p, 4.7%p 감소하며, 특히 남아프리카의 경우 2012/13년 대비해서는 1.1%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25.12 (7.9%)	20.86 (7.4%)	33.82 (9.9%)	34.6 (2.0%p)	62.1 (2.5%p)
캐나다	1.37 (11.3%)	1.55 (11.6%)	1.85 (12.8%)	35.0 (1.5%p)	19.4 (1.2%p)
아르헨티나	0.99 (4.1%)	1.41 (5.3%)	1.12 (4.6%)	13.1 (0.5%p)	-20.6 (-0.7%p)
브라질	9.21 (12.3%)	14.15 (18.3%)	11.95 (15.9%)	29.8 (3.6%p)	-15.5 (-2.4%p)
EU-27	6.67 (9.2%)	5.08 (7.1%)	5.46 (7.1%)	-18.1 (-2.1%p)	7.5 (0.0%p)
우크라이나	1.05 (4.6%)	1.20 (5.8%)	3.05 (10.5%)	190.5 (5.9%p)	154.2 (4.7%p)
남아프리카	3.68 (29.4%)	3.07 (23.6%)	3.39 (24.7%)	-7.9 (-4.7%p)	10.4 (1.1%p)
중국	59.34 (31.5%)	65.57 (32.4%)	72.20 (33.4%)	21.7 (1.9%p)	10.1 (1.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기초 재고량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2,240만 톤, 일본 18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4.7%, 12.5%, 2012/13년 대비 각각 36.7%, 3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383만 톤, EU 31만 톤, 중국 1,238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34.5%, 42.6%, 14.9%, 2012/13년 대비 각각 16.9%, 42.6%, 2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브라질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1,599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32.4%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2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5.85	4.61	3.83	-34.5	-16.9
아르헨티나	21.40	16.39	22.40	4.7	36.7
브라질	23.64	12.97	15.99	-32.4	23.3
EU-27	0.54	0.54	0.31	-42.6	-42.6
중국	14.54	15.91	12.38	-14.9	-22.2
일본	0.16	0.13	0.18	12.5	38.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생산량을 살펴보면, 미국 8,951만 톤, 아르헨티나 5,400만 톤, 브라질 8,750만 톤, EU 125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6.3%, 34.7%, 31.6%, 2.5%, 2012/13년 대비 각각 8.4%, 9.5%, 6.7%, 2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 1,220만 톤, 일본 2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5.8%, 9.1%, 2012/13년 대비 각각 6.5%, 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84.19	82.56	89.51	6.3	8.4
아르헨티나	40.10	49.30	54.00	34.7	9.5
브라질	66.50	82.00	87.50	31.6	6.7
EU-27	1.22	1.00	1.25	2.5	25.0
중국	14.49	13.05	12.20	-15.8	-6.5
일본	0.22	0.24	0.20	-9.1	-16.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소비량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3,860만 톤, 중국 7,965만 톤, 일본 302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소비량은 지속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3%, 10.5%, 0.3%, 2012/13년 대비 각각 8.6%, 4.6%,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4,843만 톤, 브라질 4,01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0.6%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2012/13년 대비해서는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소비량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착유용 대두 소비량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3,660만 톤, 중국 6,835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지속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0%, 12.1%, 2012/13년 대비 각각 8.9%,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4,586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1%,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브라질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3,7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2.8%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1,23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0.8%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196만 톤으로 2011/12년과는 변동이 없으나, 2012/13년 대비해서는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48.72 (46.35)	48.42 (45.97)	48.43 (45.86)	-0.6 (-1.1)	0.0 (-0.2)
아르헨티나	37.75 (35.89)	35.55 (33.61)	38.60 (36.60)	2.3 (2.0)	8.6 (8.9)
브라질	41.03 (38.08)	37.48 (34.48)	40.10 (37.00)	-2.3 (-2.8)	7.0 (7.3)
EU-27	13.23 (12.25)	13.64 (12.74)	13.27 (12.35)	0.3 (0.8)	-2.7 (-3.1)
중국	72.07 (60.97)	76.18 (64.95)	79.65 (68.35)	10.5 (12.1)	4.6 (5.2)
일본	3.01 (1.96)	3.01 (1.92)	3.02 (1.96)	0.3 (0.0)	0.3 (2.1)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 4,300만 톤, 아르헨티나 800만 톤, 브라질 4,450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15.7%, 8.5%, 22.7%, 2012/13년 대비 각각 19.7%, 3.4%,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37.15	35.91	43.00	15.7	19.7
아르헨티나	7.37	7.74	8.00	8.5	3.4
브라질	36.26	41.90	44.50	22.7	6.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수입량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6,900만 톤으로 대두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6.5%, 1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및 일본의 대두 수입량은 각각 1,230만 톤, 28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9%, 1.4%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1.7%,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2/13 (A)	2013/14. 2월 (B)	2013/14. 3월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EU-27	12.07	12.51	12.30	1.9	-1.7
중국	59.23	59.87	69.00	16.5	15.2
일본	2.76	2.83	2.80	1.4	-1.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기말 재고량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2,980만 톤, 브라질 1,903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81.8%, 46.7%, 2012/13년 대비 각각 33.0%, 1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367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20.4%,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EU 및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각각 52만 톤, 1,37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3.7%, 13.9%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67.7%,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16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23.1%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1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의 2013/14년 대두 기말 재고율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63.9%, 브라질 22.5%로써 이들 국가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대비 각각 27.6%p, 5.7%p, 2012/13년 대비 각각 12.2%p, 2.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4.0%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1/12년 및 2012/13년 대비 각각 1.4%p, 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EU 및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각각 3.9%, 17.2%로써 2011/12년 대비 각각 0.2%p, 4.8%p 감소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각각 1.6%p, 1.0%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일본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5.3%로써 2011/12년 대비 1.0%p 증가함에 반해, 2012/13년 대비해서는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주요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1/12 (A)	2012/13 (B)	2013/14 (C)	증감률(%)	
				2011/12 대비 (C/A)	2012/13 대비 (C/B)
미국	4.61 (5.4%)	3.83 (4.5%)	3.67 (4.0%)	-20.4 (-1.4%p)	-4.2 (-0.5%p)
아르헨티나	16.39 (36.3%)	22.40 (51.7%)	29.80 (63.9%)	81.8 (27.6%p)	33.0 (12.2%p)
브라질	12.97 (16.8%)	15.99 (20.1%)	19.03 (22.5%)	46.7 (5.7%p)	19.0 (2.4%p)
EU-27	0.54 (4.1%)	0.31 (2.3%)	0.52 (3.9%)	-3.7 (-0.2%p)	67.7 (1.6%p)
중국	15.91 (22.0%)	12.38 (16.2%)	13.70 (17.2%)	-13.9 (-4.8%p)	10.7 (1.0%p)
일본	0.13 (4.3%)	0.18 (6.0%)	0.16 (5.3%)	23.1 (1.0%p)	-11.1 (-0.7%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28 APR, 2014.